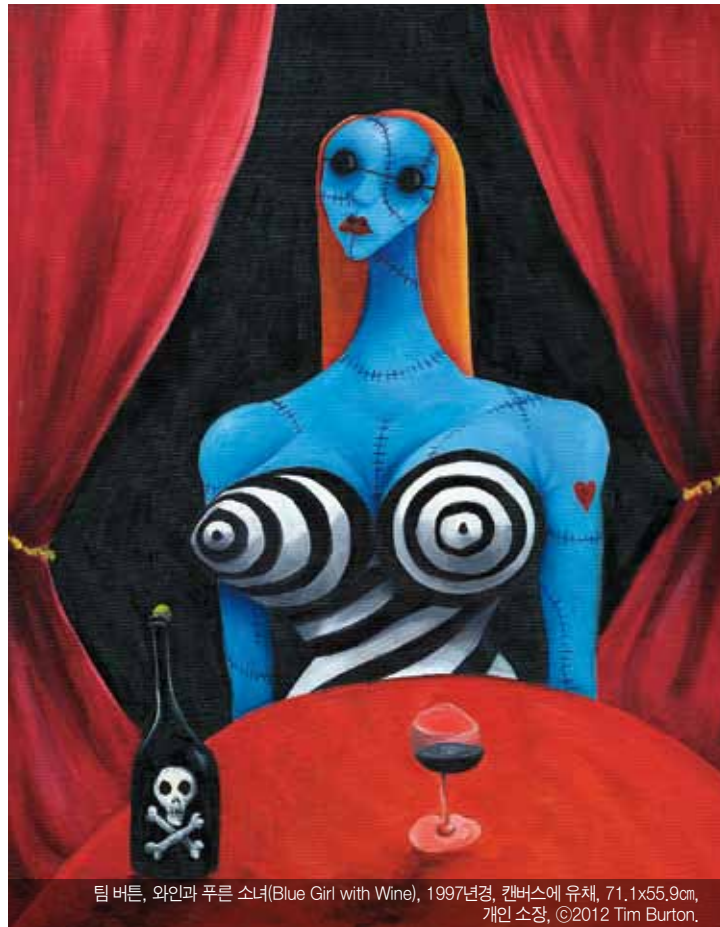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 '팀 버튼' 전 세계적인 영화감독의 미술 세계



팀 버튼, 와인과 푸른 소녀(Blue Girl with Wine), 1997년경, 캔버스에 유채, 71.1x55.9cm, 개인 소장, ©2012 Tim Burton.

할리우드에서 독특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팀 버튼 감독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현대카드의 아홉 번째 '컬처 프로젝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영화 '가위손'과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연출한 팀 버튼 감독의 예술 세계를 망라한 자리다. 팀 버튼이 어린 시절에 그린 습작부터 회화, 데생, 사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 모형 등 7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전시회는 2009년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꼽히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첫선을 보여 관람객 80여만 명을 동원하기도 했다. 1980년 '파블로 피카소' 전과 1992년 '앙리 마티스' 전에 이어 이 미술관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팀 버튼 전시회를 찾았다.

이후 멜버른과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파리 등에서 전시회가 이어졌다.

이번 한국 전시는 현대카드와 뉴욕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공동 주최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슈퍼 시리즈 블로그(www.superserie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 4월 14일까지
관람료 1만2천 원, 청소년 1만 원
문의 02-325-1077-9

사라진 제국의 딸, 덕혜옹주

전시 1월 27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1-7500

국립고궁박물관이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의 딸 덕혜옹주가 태어난 지 100년, 일본에서 귀국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특별전을 열고 있다.

덕혜옹주는 13세 때인 1925년 일본 유학을 떠나 19세에 쓰시마 증가(宗家)의 백작 소 다케유키(宗武志·1908~1985)와 정략결혼을 했다. 하지만 정신병을 앓다 1962년 고국으로 돌아와 창덕궁 낙선재(樂善齋)의 수강재(壽康齋)에서 머물다 77세를 일기로 1989년 별세했다. 박물관은 전시에서 덕혜옹주의 일생과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복식과 장신구, 혼수품 등 유품과 관련 기록물을 선보인다. 이 중 복식과 장신구, 혼수품 등은 도쿄에 있는 일본 문화학원복식박물관(文化學園服飾博物館)과 후쿠오카의 규슈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된다.

전시품 중 복식은 조선시대 여성 복식의 일종인 당의(唐衣)를 비롯해 덕혜옹주가 10세 이전에 입은 유아복과 소녀 시절 옷가지가 대부분이다.



덕혜옹주의 소녀 시절 당의, 20세기 초, 문화학원복식박물관.

전시품 상당수를 차지하는 복식박물관 소장품은 덕혜옹주와 이혼한 소다케유키가 조선왕실에서 보낸 다른 혼례품과 함께 영친왕(英親王) 부부에게 1955년 돌려보낸 것이다.

이밖에도 비단, 노리개, 은 신선로, 은 찻잔, 수저, 화장 용기, 경대와 화장 용구, 덕혜옹주 부부가 영친왕비에게 쓴 엽서도 전시된다.

바티칸 박물관 소장품 한국을 찾다

전시 3월 31일까지
관람료 일반 1만5천 원, 청소년 1만 원
문의 02-580-1300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이 소장한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이 한국을 찾았다.

바티칸 박물관 소장 미술품을 모은 '바티칸 박물관 전-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 바티칸 박물관의 소장품을 모은 대규모 전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르네상스의 3대 미술가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작품 등 르네상스 초기부터 전성기까지의 다양한 미술품 73점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모티브가 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복제본도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원본에 석고를 부어 본을 뜬 것으로, 세계에 단 2점밖에 없는 희귀품이다.

다빈치의 '광야의 성 히에로니무스', 라파엘로의 '사랑'과 '동정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움', 벨베데레의 '토르소', 멜로초 다포르리의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 등 전시작은 모두 국내에는 처음 소개된다.

이번 전시품들은 한국을 시작으로 30여 개국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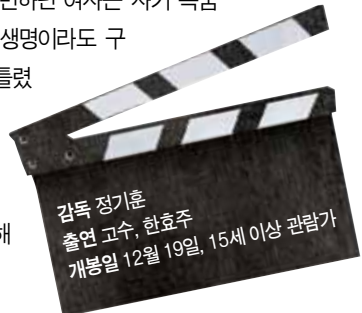
미켈란젤로, 피에타,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피에타' 원작(1498-99년의 스페셜 에디션, 1975년, 석고상, 175x195x87cm, 바티칸 박물관 대리석 복원연구소.



달콤하고 코믹한 로맨틱 영화 '반창꼬'

외과 의사 '미수'(한효주)는 응급실에 들어온 여자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주지 않고 돌려보낸다. 잠시 뒤 환자는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미수의 오진이었음이 드러난다. 흥분한 남편은 의사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소방대원 '강일'(고수)의 얼굴에 상처가 난다.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미수는 환자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강일을 찾아가 남편에 대한 고소를 증용한다. 하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은 강일은 비슷한 처지인 환자 남편을 두둔하며 미수를 쫓아낸다. 미수는 강일을 '꼬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들어댄다. 로맨스 장르에서는 드물게 의료사고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여자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영화 초반 관객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의사로서 지위를 지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행태는 아무리 예쁜 주인공이라도 공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처 입은 남자 주인공처럼 관객의 단한 마음도 여주인공의 끈질기고 능청스러운 구애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딱딱한 긴장을 푸는 것은 역시 코미디다. 미수가 한강 다리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나 강일에게

술을 먹고 간달들과 싸움질을 하는 장면 등은 큰 웃음을 준다.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경찰관들에게 "봐 주시면 안 돼요?"라고 능청스레 애교를 부리는 그녀는 여자가 봐도 사랑스럽다. 두 남녀는 결국 진짜 사랑에 빠진다. 동시에 여자는 자신의 애초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헤어짐, 남자가 인명 구조를 하며 겪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영화 후반부를 슬픈 멜로와 진지한 드라마로 이끈다. 특히 의사인 여자와 소방관인 남자가 '생명의 가치'라는 문제를 놓고 고뇌하는 모습은 꽤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내가 계속 의사 일을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라고 강변하던 여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 애쓰는 남자를 보며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는다. 다른 설정이었다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남자 주인공의 인간애와 이타성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으로 인해 설득력을 얻고 울림을 준다.



01 호빗 : 뜻밖의 여정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 그보다 앞서 1937년에 출간한 '호빗'을 피터 잭슨 감독은 거꾸로 '반지의 제왕'보다 늦게 영화화했다. '반지의 제왕'의 60년 전 이야기로,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 배긴스'의 삼촌으로 등장한 '빌보 배긴스'가 주인공이다. 젊은 빌보(마틴 프리먼)는 마법사 간달프(이언 매켈런)의 지목을 받아 난쟁이(드워프)족의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으러 떠나는 13인 원정대에 합류하게 된다. 빌보는 괴물 '트롤', '고블린', '오크'를 만나 싸우는 여정에서 나름의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넘기고 동료들을 구한다. 분위기가 '반지의 제왕'에 비해 밝고 경쾌해 좀더 가족 영화에 가까운 느낌이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에 비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야기 전개도 느슨하다.

감독 피터 잭슨 출연 마틴 프리먼, 이언 매켈런, 리처드 아미티지 개봉일 12월 13일, 12세 이상 관람가

03 레미제라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스크린에 옮겨졌다. '뮤지컬의 제왕'으로 불리는 캐머런 매킨토시가 영국의 영화제작사 워킹 타이틀과 손잡고, 영화 '킹스피치'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톰 후퍼 감독을 영입해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냈다. 이 영화는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며 노래를 직접 녹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방식으로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조화롭게 합일돼 인물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주인공인 장발장(휴 잭맨)이 세상의 냉대에 시달리다 우연히 마리엘 주교를 만나고 자신의 죄까지 모두 감싸주는 그를 보며 뒤우치는 대목의 노래와 연기, 판틴(앤 해서웨이)이 사창가로 떨어져 부르는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은 관객의 마음을 크게 울린다.

감독 톰 후퍼 출연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아만다 사이프리트 개봉일 12월 18일, 12세 이상 관람가



02 라이프 오브 파이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파이(수라즈 샤르마)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화물선에 탑승하지만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된다. 파이는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올라타 목숨을 건진다. 그러나 배 안에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리를 다친 얼룩말과 굶주린 하이에나, 새끼를 잃은 오랑우탄, 병갈 호랑이 '리처드 파커'도 함께였다. 시간이 갈수록 배고픔에 허덕이는 동물들은 서로 공격하고, 배에는 결국 파이와 리처드 파커만이 남는다. 두려움에 떨던 파이는 배에서 발견한 생존 지침서를 바탕으로 점차 조난 상황에 적응하며, 리처드 파커와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 얀 마텔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이야기에 첨단 기술을 자연스럽게 녹여 글이 구현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려낸다.

감독 리안 출연 수라즈 샤르마 개봉일 1월 1일, 전체 관람가

04 아무르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아무르'는 '사랑'을 뜻하는 프랑스어 제목 그대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부부 조르주(장 루이 트랭타양)와 안느(엠마누엘 리바). 어느 날 아침 식사 도중 안느는 갑자기 멍한 상태에 빠져 조르주를 당황시킨다. 그리고 얼마 뒤 안느는 몸의 한쪽이 완전히 마비돼 집으로 돌아온다. 안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병원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조르주에게 부탁한다. 이후 조르주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안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진다.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아내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려 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엿보게 한다.

감독 마하엘 하네케 출연 장 루이 트랭타양, 엠마누엘 리바, 이자벨 위페르 개봉일 12월 19일, 15세 관람가

“이웃을 조심하라?”

가까운 사람끼리 피를 흘리며 싸운 예는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비롯한 위그노 대학살, 같은 나라 국민끼리 다툰 수단 내전, 한국 전쟁 등이다. 러셀 자코비 UCLA대 교수는 가족, 이웃, 동료가 적으로 돌변해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현상에 관심을 뒀다. 살인 중 75%가 아는 사람 간에 벌어졌으며 살인의 이유는 대부분 사소한 것. 그는 역사 속에서 이웃 살인의 기원을 탐색한다. 특히 카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을 인류사의 키워드로 주목했다.

러셀 자코비 지음, 김상우 옮김/동녘/304쪽/1만5천 원



한옥의 따스한 속살을 훑쳐보다

“한옥은 자연과 문화를 아우른다.”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우리 고유의 주택인 한옥은 주변 풍광과 조화를 이루고, 집주인의 성격을 담는다. 건물보다 사람의 가치에 맞춰 지어진다. 오랫동안 한옥을 연구한 작가는 전국의 수려한 고택 24채를 답사했다. 그는 한옥에서 남성적 이미지 속에 감춰진 다정한 여성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각각의 한옥에서 다채로운 아름다움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냈다. 저자는 “한옥 기행이 너와 내가 맞서는 현실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현 지음/시공아트/448쪽/1만8천 원

번역가 엄마와 고교생 딸, 도쿄에서 길을 잃다

서로 대화할 기회가 적었던 모녀가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여행지로 잘 알려져 있고, 가이드북과 에세이에도 많이 소개된 일본 도쿄다. 문제는 두 사람이 심각한 길치라는 사실이다. 일서 150여 권을 번역하고 일본에서 거주하기도 했던 엄마는 지도를 앞에 놓고도 한참을 헤맨다. 자꾸만 부딪치고, 싸움도 찾아진다. 다시는 같이 오지 않으리라는 결심도 한다. 저자의 말처럼 상세한 여행 정보가 없고, 내용이 묵직하지도 않은 도쿄 여행기다. 눈길을 잡아끄는 화려한 사진도 없다. 하지만 글이 맛깔스럽고, 에피소드가 풍부하다. 그래서 독특하고, 재미있다.

권남희 지음/사월의책/344쪽/1만3천800원

‘행동하는 작가’의 특별한 여행기

1970~80년대 남미 칠레의 현실은 엄혹했다. 군사 정권에 저항하던 많은 지식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망명길에 올랐다. 루이스 세풀베다도 그중 한 명이였다. 칠레의 ‘행동하는 작가’로 알려진 그는 고국을 그리워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각지를 여행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문학의 원천이자 뿌리가 됐다. 세풀베다의 여행 산문집으로 대표작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실제 주인공을 만난 사연이 등장한다. 가난으로 꿈을 잃은 아이들, 허세로 가득 찬 지식인,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 등 사회의 부조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루이스 세풀베다 지음, 엄지영 옮김/열린책들/288쪽/1만800원



선거에 도사린 수학적 함정들

희식 메뉴를 다수결로 정해도 선호도가 가장 낮은 메뉴가 선정되는 ‘반전’이 일어나곤 한다. 삼겹살, 파스타, 탕수육 중 탕수육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적는데도 삼겹살 지지층은 ‘파스타보다는 탕수육이 낫다’고, 파스타 지지층은 ‘삼겹살을 먹느니 탕수육을 먹겠다’고 맞서기 때문. 과연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수학자 겸 저널리스트인 조지 슈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교묘하게 숨겨진 오류를 살살이 파헤친다. 2천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플라톤부터 시작된 ‘선거의 역설’을 시대순으로 추적한다.

조지 슈피로 지음, 차백만 옮김/살림/384쪽/1만5천 원

고 김수환 추기경 사진집

“이 세상에서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아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김수환 추기경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남기고 선종한 지 3년이 지났다. 여전히 김 추기경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은 지금, 그의 일상 사진과 말씀이 사진 에세이집으로 나왔다. 평화방송과 평화신문 사진기자로 20여 년간 재직하며 김 추기경의 일상과 행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록해 온 전대식 기자가 엮어낸 책이다. 특히 김 추기경이 휠체어에 앉은 채 생전 마지막으로 드린 성탄 미사 영상도 처음 공개한다. 책 표지의 QR코드에 영상 자료로 담겼다.

전대식 지음/공감/240쪽/1만4천 원

미국 힙합 스타 '50센트' 첫 내한 공연

미국 힙합 스타 50센트(50Cent)가 1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2003년 1집 '겟 리치 오어 다이 트라이(ng)'(Get Rich or Die Tryin')으로 데뷔한 50센트는 2천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 중인 글로벌 스타다. 50센트의 데뷔 앨범 '겟 리치 오어 다이 트라이(ng)'는 발매 첫 주 판매량 87만 장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그는 2집 '더 매서커(The Massacre)', 3집 '커티스(Curtis)' 등 발표하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두며 힙합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일정	1월 12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13일 오후 7시 부산 벡스코
티켓	서울(스탠딩VIP석 15만 원, 스탠딩S석 · 지정석S석 12만 원, 지정석A석 7만 원, 지정석B석 5만 원), 부산(스탠딩VIP석 15만 원, 스탠딩S석 12만 원, 스탠딩A석 7만 원)
주최	스마프프로덕션, 프로젝트케이, 토모니
문의	02-2182-5541, 1899-4948



(로이터-연합뉴스)



뉴욕의 보석 같은 밴드 '더티 프로젝트스' 첫 내한

미국 록 밴드 더티 프로젝트스(Dirty Projectors)가 1월 27일 서울 서교동 브이홀(V-Hall)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더티 프로젝트스는 뉴욕의 언더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천재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 롱스트레스(David Longstreth)가 이끄는 밴드다. 예일대 출신인 롱스트레스는 섬세한 편곡과 독특한 보컬로 발표하는 곡마다 화제를 모았다. 2002년 데뷔한 더티 프로젝트스는 북·남미와 태평양 일대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인디 뮤직 전문 온라인 매거진인 '피치포크'는 이 밴드에 두 번이나 '베스트 뉴 뮤직' 타이틀을 안겼으며, 빌보드와 롤링스톤·NME 등 다른 음악 전문지들 역시 이 밴드를 2000년대 인디신의 선두주자로 주목하고 있다.

일정	1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서교동 브이홀(V-Hall)
티켓	6만6천 원(스탠딩)
주최	9ENT,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문의	02-332-3277



최백호 콘서트 '다시 길 위에서'

가수 최백호가 1월 19~20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정규 음반 '다시 길 위에서' 발매를 기념하는 단독 공연을 한다.

'다시 길 위에서'는 최백호가 2000년 발표한 앨범 '어느 여배우에게' 이후 12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신곡 10곡과 데뷔 앨범 수록곡 '뛰어'의 리메이크곡 등 총 11곡이 담겼다.

최백호는 이 앨범에서 팝 재즈, 누에보 탱고, 집시 스윙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호평을 받았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다시 길 위에서' 수록곡과 기존 히트곡, 인기 팝 넘버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와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게스트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일정	1월 19일 오후 7시/20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티켓	VIP석 10만 원, R석 9만 원, S석 8만 원
주최	JNH뮤직, 엔라이브ent
문의	02-3143-5480, 02-549-5520



보아, 데뷔 13년 만에 첫 국내 공연

가수 보아가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 보아는 1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보아 스페셜 라이브 2013~히어 아이 엠(Here I am)~'이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보아는 이미 일본에서 경기장(아레나) 투어 등 대규모 콘서트를 성황리에 펼치며 라이브 가수로서의 실력을 입증했지만, 국내에서 단독 공연을 여는 건 2000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공연에서 보아는 2012년 7월 발표한 정규 7집 '온리 원(Only One)' 수록곡을 비롯한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아는 현재 SBS TV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시즌 2'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일정	1월 26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티켓	플로어석 9만9천 원, 지정석 8만8천 원
주최	SM엔터테인먼트
문의	1566-5702

빅뱅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 마지막 공연

그룹 빅뱅이 1월 25~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월드 투어 '얼라이브 갤럭시 투어(Alive Galaxy Tour)'의 대미를 장식한다.

'더 파이널(The Final)'이란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빅뱅은 '얼라이브' 앨범 수록곡을 비롯한 다양한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빅뱅은 2012년 3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미국, 영국 등 총 12개국의 24개 도시에서 관객 75만 9천여 명과 만났다.

빅뱅은 '더 파이널' 공연을 통해 추가로 관객 4만여 명을 동원, 총 관객 수 8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뱅 관계자는 "월드투어를 통해 빅뱅이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확산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정	1월 25일 오후 8시/26~27일 오후 6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VIP석 9만9천 원, R석 8만8천 원
주최	YG엔터테인먼트, 라이브네이션
문의	1566-5702

김동률, 세종문화회관서 '감사' 앙코르 공연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이 1월 17~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 투어 공연 '감사'의 앙코르 무대를 선보인다.

김동률은 2012년 9~12월 부산, 대전, 서울, 성남, 전주, 고양,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감사'란 타이틀로 공연을 열어 관객 2만6천여 명을 동원했다. '감사'는 관객 사이에서 '명품 공연'이란 찬사를 받으며 전회 매진 기록을 세웠다.

김동률은 앙코르 공연에서 솔로 앨범 수록곡은 물론, 전람회·카니발·베란다 프로젝트 등 자신이 몸담았던 그룹의 히트곡도 새롭게 편곡해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첫 투어를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주신 관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1월 17~18일 오후 7시 30분/19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13만2천 원, S석 12만1천 원, A석 9만9천 원, B석 7만7천 원
주최	뮤직팜
문의	1544-1555, 02-399-1114~6

스릴러 뮤지컬 '레베카'

스릴러의 거장 히치콕의 영화로도 잘 알려진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 '레베카'가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엘리자벳', '모차르트'로 국내 관객에게도 친숙한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와 극작가 미하엘 쿤체 콤비의 작품. 사고로 죽은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 드 윈터와 결혼한 '나'는 막심과 함께 맨덜리 저택으로 오지만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은 '나'를 쫓아내려 한다. 순진하고 소심한 소녀였던 '나'가 강하고 확신에 찬 여성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사랑 이야기와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로 담았다. 유준상과 류정환, 오만석이 막심 드 윈터 역을, 옥주현과 신영숙이 댄버스 부인 역을 맡았다. '나' 역은 임혜영과 김보경이 더블 캐스팅 됐다.

일정 1월 12일~3월 31일 평일 오후 8시·토 오후 3시/7시·일 오후 2시/6시,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티켓 5만~13만 원
문의 02-6391-6333



차승원·초난강이 한 무대 서는 '나에게 불의 전차들'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 정의신의 신작 '나에게 불의 전차들'이 서울 장충동2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100년 전 경성을 배경으로 국경과 신분을 넘어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남성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 차승원이 남사당패의 가열(연기자)인 이순우 역을 맡아 조선의 백자를 사랑한 일본인 나오키와 우정을 쌓아간다. '초난강'으로 알려진 구사나기 쓰요시가 나오키 역을, 영화 '철도원'으로 국내에 소개됐던 배우 히로스에 료코가 나오키의 동생 마쓰요 역을 맡았다. 김응수가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로 함께 출연한다.

일정 1월 30일~2월 3일 평일 오후 7시 30분·토 오후 2시 / 7시 30분·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2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티켓 2만~10만 원
문의 1544-1555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 두 번째 내한 공연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가 두 번째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지난 2009년 12월 첫 리사이틀을 가진 이후 3년 만이다. 기녀린 외모와 상반되는 강력한 타건, 섬세함과 무게감이 균형을 이룬 음색으로 중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그리모는 1987년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발탁됐다. 2002년 도이체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었고 이후 발매한 음반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스타 연주자로 자리 잡았다. 엘렌 그리모는 한 단어나 문장으로 축약되지 않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팔색조의 피아니스트다. 뉴욕의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늑대에게서 위로를 받아 1999년 늑대보호센터를 설립했으며, 환경론자로서의 삶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담은 책 '야생의 변주', '특별수업' 등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다. 다독을 통한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외국어 실력 등도 그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여류 피아니스트로서는 드물게 바흐, 베토벤, 쇼팽, 브람스, 라벨, 라흐마니노프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소나타, 베르크 소나타, 리스트 소나타, 버르토크 루마니아 민속 무곡 등 지난 2010년 발매했던 음반 '레조낭스'의 수록곡을 모두 연주한다.

일정 1월 29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3만~10만 원
문의 1577-5266

'평화 전도사' 주빈 메타가 여는 신년 음악회

인도 출신의 거장 주빈 메타가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함께 신년 갈라 콘서트로 2013년의 문을 활짝 연다. 메타는 음악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1년부터 중신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3천 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이 같은 행보를 이어왔다. 1991년 걸프전 당시 그는 포화를 뚫고 이스라엘을 찾아 이스라엘 필을 지



휘하며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는 시위대와 마주치기도 했지만 주빈 메타는 '음악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하며 고전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 곳곳에 전하고 있다. 그의 연주는 뼈대가 굵고 박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정교하면서도 부드러운 울림을 갖고 있다. 단원 대부분이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 연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 필하모닉은 강한 결속력을 자랑하며 유태계 작곡가의 작품 연주에서 최고 수준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년 음악회답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와 왈츠 곡 등으로 첫날 공연을 열 예정이다. 둘째 날의 메인 레퍼토리는 브람스 교향곡 1번이며, 양일 공통 프로그램으로 베토벤의 '레오노레' 서곡 제3번과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카프리치오' 등이 연주된다. 신년 분위기를 내기 위해 남성은 턱시도나 어두운 색 양복, 여성은 드레스나 화려한 원피스로 '드레스 코드'가 지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일정 1월 5~6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5만~38만 원
문의 02-749-8821